

광주·전남 내일부터 태풍 '링링' 영향

기상청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 불 것" 예보

제13호 태풍 '링링'이 6일부터 광주와 전남지역에 영향을 미쳐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태풍 링링은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44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3km의 속도로 북상 중이다.

태풍 링링은 중심기압 980hPa, 최대풍속 29%, 강풍반경 270km급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태풍은 7일 오전 제주도서쪽 해상을 지나 7일 낮 서해상으로 이동 하겠고, 7일 오후 황해도와 경기북부서해안 부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풍 링링은 북위 30도 부근을 지나는 6일 오후까지는 수온이 높은 구역(29도 이상)을 통과하면서 세력이 점차 강해질 것으로 기상청은 보고 있다.

특히 6일 밤부터 7일까지 우리나라 주변에 형성된 상층 대기의 강한 남서풍을 따라 그 세력을 다소 유지한 상태로 빠르게 서해상으로 진입하겠고, 우리나라는 태풍의 우측반원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6일 밤부터 8일 오전 사이 해안과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35~45%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20~30%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남해서부와 서해남부 전 해상에 높은 파도가 이는 등 최대 10m 이상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보했다.

많은 비도 예보되고 있다.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점차 북상함에 따라 광주와 전남은 6일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8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남해안에 100~200mm,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와 전남지역에 50~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태풍과 가장 인접하는 시기인 7일 오전에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20~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최대 200mm 가량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비와 함

께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저지대 침수와 하수범람, 양식장 피해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사현장 등에서도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 농작물 피해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변 기압계의 상황에 따라 태풍의 속도 등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달



라고 당부했다.

신봉우 기자



수크령에 매달린 가을 빗방울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 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핀 수크령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태풍 '링링' 북상...광주·전남 외부 행사 줄줄이 연기

자치단체 피해예방 비상대응체제 돌입

제13호 태풍 '링링'이 서해안을 따라 북상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종 행사를 연기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4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은 6일부터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기상청 태풍예비특보 발효 시 선제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태풍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철야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각 자치구에서도 현장 순찰반과 민·관·군·경 합동 현장지원반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을 즉시 가동하고 인명피해, 침수 우려 등 취약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전남지역 자치단체들도 주민 안전을 위해 예정된 행사를 연기하는 등 태풍 대응체제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6일부터 3일간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19 전라남도 혁신박람회'를 9월18~20일로 연기했다.

전남도는 행사 기간 태풍이 목표 앞 서해안을 지나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관광객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행사 연기를 결정했다.

여수시도 이순신광장과 장군도 해상 일원에서 7일 오후 개최 예정이던 '2019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를 10월26일로 연기했다.

축제 당일 여수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기상청 예보를 접하고 축제 추진위, 용역사와 긴급회의를 통해 전격 결정했다.

완도군 또한 5일 예정됐던 완도 차매안심센터 개소식을 10일로 늦췄다.

정찬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태풍 '링링'이 세력을 키워가는 상황이라 이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해 부득이하게 각종 행사 일정을 연기했다"며 "재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맛비에 쓰러진 나무, 주차 차량 2대 덮쳐

4일 오전 8시30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에서 나무가 쓰러져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차량 2대를 덮쳤다.

차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기울장마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나무가 쓰러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 여친 감금 40대, 진술 중 음주운전 들통

해어진 전 여자친구를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도 적발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4일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와 마다툼하다 물건을 던져 부수고 여자친구를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 등)로 A씨(41)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15분쯤 광주 서구 한 무인텔에서 여자친구 B씨(28)와 언쟁을 하다 모텔에 비치된 집기류를 던져 B씨를 위협하고, B씨를 1시간가량 방 안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달 전 헤어진 사이로 1~2시간 전쯤 함께 술을 마신 후 무인텔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감금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을 마신 후 모텔에 왔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음주 측정을 실시,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면허취소수치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인천공항 주차장서 3200만원 텀 차량털이범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상습절도 혐의로 A씨(57)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인천국제공항 장기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총 18차례에 걸쳐 총 3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항 이용객들이 해외로 떠나기 전에 주차된 차량 내에 원화를 비롯해 금품을 둔 상태로 출국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공항 이용객인 척 기장해 공항 주차장을 돌면서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금품을 훔쳤다.

A씨가 털이한 차량 중에는 한 신혼부부의 축의금 900만원이 보관된 승용차량도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에 또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혼부부 등 해외 여행 준비로 경황이 없는 여행객들이 공항 주차장 내 차량을 주차하면서 다액의 현금을 두고 차 문을 제대로 잠기지 않은 채 여행을 가는 경우가 있다"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부 집 따라가 강도짓 하려던 30대 자수

흉기를 들고 30대 주부의 집에 몰래 따라들어가 강도짓하려던 3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자수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4일 오전 6시40분께 A씨가 서울 용산의 한 파출소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에 구리시의 주택가에서 B씨(34)를 따라가다가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흉기를 들고 침입, 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를 받고 있다.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휴대전화로 인터넷뱅킹 송금하라고 요구했고,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달아났다.

뉴스1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